



한동구 | 평택대

1. 문제제기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 왕권 제도가 등장하면서, 이스라엘 사회의 생활 양식은 적지 않은 변화를 겪었다. 국민들을 지배하는 새로운 제도가 등장하면서, 특권층이 생겨났다. 또한 4공간을 가진 집이 기원전 11-10세기에는 결코 볼 수 없었으나, 기원전 8세기에는 주종을 이루었으며, 기원전 8-7세기, 대도시에는 앗시리아의 영향을 받아 안뜰이 있는 집이 생겨났다.¹⁾ 기원전 8-7세기 동안, 이스라엘 사회는 엄청난 변화를 겪었다. 이러한 변화의 주요한 원인은 특권층인 관리들이 그들의 지위를 이용하여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면서, 생겨난 것이다.

1) 참조 H. Rösel, "Haus," *BRL* (Tübingen 1977), 138-141.

기원전 8세기 전반기에는, 앓시리아가 아람(시리아)을 압박함으로써, 팔레스타인 지역은 아람의 압박으로부터 자유를 얻어, 평화로운 시절을 보냈다. 이로 인하여 경제적 번영도 누렸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이스라엘 사회는 부자와 가난한 자들 사이의 차이가 보다 더 심화되었다.

기원전 8세기 말엽부터 유다 내의 대부분의 도시들은 확장되었다. 기원전 8-7세기 동안 예루살렘의 거주지는 세 배로 확장되었다. 예루살렘 확장의 이유는 먼저 북왕국에서 남왕국으로 유입되어 온 난민에서 찾을 수 있으며, 다음으로 소자유 농민들이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해 온 이농현상에서 찾을 수 있다.

군대와 중앙 정부를 가진 왕권 국가가 형성된 이래로 백성들은 조세와 부역의 부담을 져야했고, 또 앓시리아의 지배로 인하여 백성들은 조세와 부역 외에 조공을 위한 부담도 함께 져야 했다. 더욱이 긴 전쟁으로 인하여 농토들이 황폐해지면서, 농산물이 감소되었다. 더욱이 부자들은 경제적 약자들의 어려운 처지를 그들이 부를 증대시킬 수 있는 기회로 삼으면서, 경제적 약자들은 채무자가 되었다.

히스기야 시대 이래로 나그네/떠돌이의 문제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였다. 따라서 법의 보호밖에 놓인 이들, 나그네/떠돌이를 지켜주어야 한다는 신학적인 주장은 이러한 역사적인 상황의 필연성과 관련된다.

본 연구에서는 나그네 발생의 일반적 동기와 이스라엘 역사에서 기원전 8-7세기에 나타난 특별한 역사적 동기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나그네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주장하고 있는 다양한 신명기의 법규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안식일 예배 공동체에서 나그네를 배제하지 말라(신 5: 14); 둘째, 예배 공동체의 참석자의 확대(신 16:11, 14; 26:11; 참조 신 12:18); 셋째, 가난한 자를 위한 십일조(신 14:28-29; 26:12-13) 그리고 넷째, 신명기의 인도주의적 법력에 나타난 사회적 약자 보호(신 24:6-25:18) 등이다.

2. 나그네 발생의 일반적 동기

구약성경과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의 문헌들에서는 다양한 이유에서 나그네가 생겨나게 된 배경을 전하고 있다.²⁾ 먼저 구약성경에서는 정치적 동기에서 나그네/떠돌이, 즉, 망명자가 생겨났음을 보여준다. 또 경제적, 사회적 동기에서도 나그네가 생겨났음을 보여준다. 사회적 하층민들이 부채를 지고, 논과 밭은 물론 집도 잃어버리고(=빼앗겨 버리고), 마침내는 나그네가 되기도 한다. 이들은 가난과 부채로 인하여 그의 고향을 떠나, 군대의 용병이 되거나 힘 있는 자의 사병이 되기도 한다. 또는 일거리를 찾아 헤매기도 하고, 부자들(=악인들)의 논밭에서 이삭을 줍기도 한다.

그밖에도 전쟁이 일어나면, 많은 난민이 발생하게 된다. 또 범죄를 저지르고, 특히 살인을 행하고 처벌이 두려워 도망가는 경우도 있다. 노예들이 주인을 피해 도망가기도 한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대량의 나그네를 발생시킨 두 사건이 있다. 첫째,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하면서 대량의 난민이 발생하였다. 둘째, 왕조 시대 말기 무수한 사람들이 농촌을 떠나는 현상이 생겨났다. 이로 인하여 대량의 나그네들이 생겨났다. 대량의 나그네 발생과 함께 신명기 개혁 운동에서는 이러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려는 법률들을 제정하였다. 신명기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배려가 언급되어 있다. 특별히 나그네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많이 언급되어 있다.

2) 참조 W. Schottruff, "Kirche als unanastbarer Raum für Flüchtlinge. Biblische und aktuelle theologische Aspekte des Asylrechts," ders, *Die Macht der Auferstehung* (KT 30; München: Chr. Kaiser Verlag, 1988), 91-97.

3. 나그네 발생의 특별한 역사적 배경

1) 북왕국의 멸망과 대량의 난민 발생

먼저 정치적 동기에서 생겨난 나그네/망명자들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기원전 722/21년에 망하면서 많은 피난민들이 생겨났다. 앗시리아에서 디글랏빌레셀 3세(기원전 745-727)가 죽고 살만에셀 5세(기원전 726-722)가 등극하자 북왕국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인 호세아(기원전 732-724)는 앗시리아의 지배에서 벗어날 목적으로 애굽과 관계를 맺고(왕하 17:4), 앗시리아에게 바치는 조공을 중단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자살 행위나 마찬가지였다. 기원전 724년에 살만에셀이 공격을 해왔고, 호세아는 이 때 붙잡혀 감금되었다. 앗시리아 군은 사마리아를 제외한 나머지 이스라엘 땅을 점령한 뒤 사마리아를 포위하여 공격하였다. 앗시리아에서 살만에셀이 죽고 사르곤 2세(기원전 721-705)가 왕이 된지 얼마 되지 않은 기원전 722/21년에 마침내 사마리아는 함락되었다. 이제는 이스라엘의 남은 땅마저 앗시리아의 영토에 편입되어, 사마리아 속주가 되었다. 이렇게 하여 이스라엘 왕국은 영원히 멸망하였다. 열왕기하 17장 6절에서 전하듯, 수천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주로 상류계층)은 메소포타미아와 메대로 이주 당했다. 이들은 다른 이주자들과 마찬가지로 수적으로 많은 원주민들에게 흡수되어 들어갔다. 그리고 다른 지역, 바벨로니아, 바벨론 성, 바벨로니아의 성읍인 구다, 북부 시리아의 하맛 등에서 온 이방인 상류 계급들이 사마리아 속주에 거주하게 되었다. 이들도 이 땅에 남아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동화되었다.

사르곤 2세의 통치 초기 그의 왕위 계승에 이의를 제기하였다. 이로 인해 기원전 720년까지 다른 곳 - 먼저는 앗시리아에서, 다음으로 남부 메소포타미아 -에서 소요가 일어났다. 이 소요를 진압하기 위해 시리아 -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군대를 철수하였다. 이를 틈타 하맛을 중심으로 反

앗시리아 1차 동맹이 맺어졌다. 기원전 720년이 되어서 비로소 시리아 팔레스타인을 평정했다. 이 때 하맛과 함께 사마리아도 다시 정복되었다.

북부의 주민들 중 일부는 이방인의 땅으로 끌려가지 않기 위하여, 또는 반앗시리아 저항(하맛을 중심으로 한 제 1차 반앗시리아 동맹)에 대한 보복이 두려워 남왕국 유다로 도망했을 것이다.³⁾

기원전 8세기의 한 세기 동안 대도시의 거주 지역이 확장되었다. 기원전 8세기 말엽부터 예루살렘의 남동 언덕 지역(성전의 남쪽지역, 기드론 골짜기와 중앙 골짜기 사이의 언덕 지역)에 주거하기 시작했다. 한 세기 동안 예루살렘의 거주지역은 거의 두 배로 늘어났다.⁴⁾ 예루살렘에 대한 고고학적 발굴에서 왕조시대 후기에 예루살렘이 크게 확장되었음을 밝혀 준다. 도시 팽창의 주된 이유는 북왕국의 멸망으로 인한 대량 난민 발생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성서의 문헌적 증거는 역대하 30장 25-26절에 보여 준다. 여기에서는 축제의 참석자들을 열거해 주고 있다:

“유다의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이스라엘에서 온 회중 - 아마도 단순한 축제의 방문객인 것 같다 - 과 이스라엘에서 와서 유다에 살게 된 나그네들(die Fremdlinge)”

역대하 30장 25-26절에 언급한 떠돌이들은 아마도 북왕국이 멸망한 후에 그들의 고향을 떠나 남쪽 유다로 내려왔을 것이며, 이들 중의 대부분은 예루살렘과 같은 대도시로 자리잡게 된 자들일 것이다.⁵⁾

3) 한동구, 「신명기 개혁운동의 역사」(서울: 도서출판 B&A, 2007), 44-45.

4) M. Broshi, “La Population de l’ancienne Jerusalem,” RB 82(1975), 5-14, 특히 8. E. Otto, *Jerusalem - die Geschichte der Heiligen Stadt, Von den Anfängen bis zur Kreuzfahrerzeit*, (UT 308; Stuttgart, 1980), 69.

2) 이농현상과 도시화 과정

북왕국의 멸망으로 인하여 대량의 난민이 발생하여 도시들이 급격히 팽창한 이후에도 유다의 도시들은 계속하여 팽창했다. 예루살렘의 성벽은 히스기야 시대에 한번 변경된 이래⁶⁾로 남왕국 유다의 멸망 때(기원전 587년)까지 3차례의 성벽 파괴를 확인할 수 있다. 앗시리아왕 앗시리아바니팔(기원전 669-630) 시대에 유다왕 므낫세는 남동 언덕에 성벽을 재건했다(대하 33: 14). 이 점은 케논의 발굴을 통해 입증되었다. 앗시리아바니팔이 죽은 후에 유다왕 요시아(기원전 639-609)는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 확장하였다. 아마도 그의 통치 기간에 기원전 8세기부터 거주하기 시작한 남서 언덕이 성안으로 포함되었을 것이다. 예루살렘의 서쪽언덕 거주에 대한 성서적 보도는 열왕기하 22장 14절(참조 슝 1:11)에서 언급하고 있다.⁷⁾

남서 언덕 지역이 기원전 8-7세기 동안 새롭게 주거지역으로 확대된 것은 최근의 고고학적 발굴을 통해 확실하게 입증되었다.⁸⁾ 히스기야 시대 이후부터 남왕국 멸망에까지 세 개의 거주층이 있었다: 거주층 XI(기원전 7세기 중엽), 거주층 XB(기원전 7세기 후반세기), 거주층 XA(기원전 6세기 초반 - 기원전 587년까지).⁹⁾ 예루살렘의 주거 면적이 거의 세배로 확장되었다. 다윗 시대 이래로 예루살렘은 거의 10배로 확장되었다.¹⁰⁾

5) 대한 30장 25절의 언어 및 신학적 특성은 역대기 사가의 (후기 편집층 - 헬리니즘 시대의 편집층) 것으로 간주된다. 이희학, “역대기하 30장 25절의 ‘회중, 이스라엘, 나그네’에 대한 연구” 『구약논단』 제 16권 2호 통권 36집(2010년 6월 30일), 10-29 참조. 그럼에도 북왕국에서 망명한 자들(혹은 나그네들)의 수용이 완전히 역대기 사가의 문학적 창작만은 아니다. 역사적 개연성이 있다.

6) 기원전 705년 이후에 재건되고 701년에 앗시리아의 침공으로 많이 허물어졌다.

7) E. Otto, *Jerusalem*, 75f.

8) K. M. Kenyon, *Jerusalem, Die heilige Stadt von David bis zu den Kreuzzügen Ausgrabungen 1961-1967*, (Bergisch - Gladbach, 1968). Dies, *Digging Up Jerusalem*, (London, 1974). 최근의 발굴들 in der Zitadelle 지역(C. N. Johns, R. Amiram, A. Eiton); Armenischer Garten 지역(D. Bahat, M. Broshi); Zionsberg 지역(M. Broshi); jüdischer Viertel der Altstadt(N. Avigard). 그 밖의 관련 문헌들 M. Broshi, “La Population de l’ancienne Jerusalem,” 8, E. Otto, *Jerusalem*, 69, W.

여기에서 몇 가지 문제점이 제기된다. 이러한 거주지의 확장이 언제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는가 하는 점과 어떤 이유에서 이루어졌는가 하는 점이다. 거주지가 남서 언덕으로 본격적으로 확장된 시기는 기원전 7세기부터이다. 마자르(B. Mazar)는 중앙 골짜기의 하렘(Harem)의 남서쪽 귀퉁이에서 공동묘지를 발굴했다.¹⁰⁾ 이 공동묘지는 기원전 9-8세기 동안에 형성되었다. 그리고 기원전 7세기경에 해체되어 더 이상 공동묘지로 사용되지 않았다. 주거지 형성의 일반적인 원칙에 따르면 왕실의 묘지를 제외하고 일반인들의 묘지는 대개 마을밖에 둔다. 따라서 기원전 8세기까지는 남서 언덕에 대량의 이주가 가능하지 못했을 것이다. 남서 언덕 지역의 대량 이주는 므낫세(기원전 696-642년)와 요시아(기원전 639-609년)의 통치 기간동안 평화로운 90년 사이에 이루어졌다.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이 시기는 예루살렘의 역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도시 확장의 이유를 자연적인 인구증가, 즉, 출산율의 증가로는 설명할 수 없다. 기원전 8세기에는 도시의 인구 증가를 북왕국의 난민의 대량 유입으로 설명할 수 있으나, 그 이후 기원전 7세기에도 계속된 도시의 인구 증가는 다른 원인으로 설명되어야 한다. 기원전 7세기의 예루살렘의 인구 증가와 도시의 팽창은 농촌의 소자유 농민들의 이농현상으로 설명되어야 한다. 이들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 그들의 농토를 잃어버리고, 대도시에서 생계를 유지할 일자리를 얻기 위해 이주해 왔다. 이들은 아마도 일용노동자나 소작농으로 생계를 이어갔을 것이다.

기원전 701년 앗시리아의 침공 이래로 영토의 많은 부분을 잃어 버렸다.

Meier, "... Fremdinge, die aus Israel gekommen waren Eine Notiz in 2 Chr 30, 25f. aus der Sicht der Ausgrabungen im Jüdischen Viertel der Altstadt von Jerusalem", *BN* 15(1981), 40-43.

9) 거주층 XA는 남서 언덕 - 성전 남쪽 지역, 중앙 골짜기를 넘어 동쪽과 남쪽에는 힌놈 골짜기로 경계를 이룬다 -까지 거주지가 확장된 것을 볼 수 있다. 거주지가 기드론 골짜기에서 힌놈 골짜기까지 확장되었다.

10) E. Otto, *Jerusalem*, 74ff.

11) A. Mazar, *IEJ* 26 (1976), 1-8.

농경사회에서 주요한 수입의 원천은 토지다. 따라서 토지의 상실은 국가의 주요 수입원의 상실을 의미한다. 국가의 수입원이 줄어든 상황에서 관리들에게 지불되는 국가의 경비는 줄지 않았고, 설상가상으로 조공마저 지불해야 했기에 국민들의 부담은 더욱 가중되었다. 이러한 상황들은 농촌의 소자유 농민들을 도시로 이농케 한 중요한 이유가 되었을 것이다.

북왕국이 몰락함으로써 대량의 난민들이 발생하였으며, 또 사회적 이유에서 많은 사람들이 농촌을 떠나 도시로 이주하여 떠돌이로 살았다. 북왕국에서 피난 온 난민들이나 농촌으로부터 온 떠돌이의 문제는 히스기야 시대 이래로 심각한 사회적 문제였다. 따라서 법의 보호밖에 놓인 이들, 떠돌이들을 지켜 주어야 한다는 신학적인 주장은 이러한 역사적인 상황의 필연성과 관련되었다.

4. 나그네 및 사회적 약자의 배려에 대한 신명기의 증거

신명기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그네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먼저 많은 경우에 다른 사회적 약자와 함께 예배 공동체에서 배제하지 말라는 주장이다. 신명기의 예배는 민족 전체의 참여를 주장한다. 여기에 사회적 약자를 배제해서는 안 되며, 일시적으로 머무는 나그네도 배제하지 말라고 주장한다(참조 신 5:14; 16:11, 14; 26:11). 다음으로 나그네는 사회적 약자이기에 그들을 도우라고 말씀한다. 또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의 과정에서 나그네를 배제하지 말라는 주장이다. 특별히 가난한 자들을 위한 십일조를 드릴 때, 나그네도 배제하지 말 것을 당부한다(참조 신 14:29; 26:12, 13; 24:14, 17, 20, 21; 27:19).

1) 안식일 예배 공동체에서 나그네를 배제하지 말라(신 5:14)

‘6일간 노동을 하고 제 7일째 휴식을 하는 안식일’ 제도의 기원은 ‘이스

라엘적이며, 신명기적 전통'에 기인한다.¹²⁾ 신명기 이전의 안식일 제도가 초하루와 보름에 행해지는 종교축일인지, 아니면 6일간 노동을 하고 제 7일째 휴식하는 제도인지는 분명치 않다. 어쨌든 신명기에서는 6일간 노동을 하고 제 7일째 휴식하는 안식일을 계명으로 규정하였다.

6일간 노동을 하고 제 7일째 휴식을 명하는 성서의 본문은 십계명(출 20:8-11과 신 5: 12-15)과 출애굽기 34장 21절과 출애굽기 23장 12절에서 언급하였다. 출애굽기의 십계명(출 20:8-11)에서는 안식일 준수에 근거를 창조의 역사에서 찾고 있으며, 신명기의 십계명(신 5:12-15)에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출애굽 사건에서 찾고 있다. 전자는 분명히 포로기 이후에 형성되었다는데 이론의 여지가 없으나, 신명기의 안식일 계명은 신명기 개혁 운동의 산물로 간주된다.

신명기 5장 12-15절의 본문을 번역하면 아래와 같다:

12야훼 네 하나님께서 네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그날을 거룩히 하라! 13너는 옛새 동안 일하며 네 모든 일을 행하여야 한다. 14a제 7일은 야훼 네 하나님을 위한 안식일이다. 14ba 너는 일체의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너와 네 아들과 네 딸과 네 남종과 네 여종과 네 소와 네 나귀와 네 모든 가축과 14bβ 네 문 안에 유하는 나그네라도 일체 일해서는 안 된다. 14by 이는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 너와 같이 휴식하기 위함이다. 15aa β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을 때, 15ay δ 야훼 네 하나님께서 너를 그곳에서 강한 손과 편 팔로 이끌어내었다. 15ba β 그러므로 야훼 네 하나님께서 네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였다.

신명기 5장 12절은 "... 안식일을 지켜, 그날을 거룩히 하라"고 명한다. 출애굽기의 십계명을 포함하여 신명기의 십계명에서는 이미 안식일 제도

12) 한동규, "안식일 이해의 변천사와 종교교육전통," 한동규, 「창세기의 신앙과 신학」(한국구약총서 014; 서울: 프리칭 아카데미, 2010), 77-81.

를 전제하고 있으며, 여기에서는 야훼 하나님께서 명령한 계명으로 준수해야 한다.

신명기 5장 13절과 14abx 절 일부에서는 안식일은 제 7일이며, 안식일의 으뜸 목적이 휴식하는 데 있음을 보여 준다. 7일을 주기로 휴식을 명하는 새로운 안식일 제도의 제정의 목적과 동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알 수 없다.¹³⁾ 여기에서는 분명히 노동으로부터의 휴식이며, 이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지향한다(참조 신 5:14by 이는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 너와 같이 휴식하기 위함이다)는 점에서 예배 참석자의 확대는 자연스러운 것이다.

이러한 안식에 참여하는 자는 매우 포괄적으로 확대되어 있다. 먼저 가족이 포함된다(너와 네 아들과 네 딸).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의 예배는 가족 중심적이다(삼상 1장). 다음으로 사회적 약자가 포함된다(네 남종과 네 여종, ... 네 문 안에 유하는 나그네). 여기에 분명하게 나그네를 포함하고 있다. 이는 신명기 개혁운동의 정신이 반영되어 있다. 그리고 안식의 대상이 자연계에까지 확대되어 동물(네 소와 네 나귀와 네 모든 가축)의 안식을 포함한다.

여기에서 특이한 점은 첫째, 남종-여종들과 나그네 사이에 동물의 안식이 끼워져 있으며, 둘째, 안식 명령의 목적을 규정하는 신명기 5장 14bγ 절(이는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 너와 같이 휴식하기 위함이다)에서는 다만 “남종과 여종”만을 언급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나그네의 휴식과 동물

13) 레빈은 이점에 대하여 “이 새로운 계명은 관습이 아니라, ‘반자연주의 신학’의 산물이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안식일 제도가 ‘반자연주의’를 목적으로 제정되었다고 하기보다는 안식일을 제정한 결과로 ‘반자연주의’적 태도가 나타났다고 보아야 한다. 레빈은 이러한 반자연주의 신학을 포로후기에 형성된 것으로 보았으나, 참조 Ch., Levin, *Der Sturz der Königin Atalja*, (SBS 105; Stuttgart: Verlag Katholisches Bibelwerk, 1982), 4ff. 필자는 오히려 신명기 개혁운동의 결과로 나타난 합리주의적 신앙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본다. 정치신학적 관점에서 종교개혁이 계속되는 동안 원래 의도하지는 않았으나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중의 하나는 합리주의 정신 혹은 반자연주의 신학이다. 일신론이 강조되는 동안 야훼의 아내로서 의 아세라의 존재는 자연스럽게 무시된다.

의 휴식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는 않다.

이것은 아마도 안식에 참여하는 대상들이 점진적으로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목록의 발달과정을 연대기적으로 정확히 재구성하기란 불가능하다. 전통적으로 가족의 범주에 아들과 딸, 그리고 남종과 여종이 포함된다. 그리고 신명기 개혁운동에서는 가족을 민족적 차원에서 이해하고 있어, 나그네도 포함시키고 있다. 이러한 목록은 신명기 개혁운동 정신의 산물로 이해해야 한다.¹⁴⁾

기원전 8-7세기 외세의 침입을 효과적으로 막기 위하여 내적 개혁을 단행했고, 여기에서 국민적 총화를 이룩하기 위하여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배려를 해야 했다. 신명기의 안식일 계명(신 5:12-15, 단 15절 제외)은 이스라엘 왕조시대 말기 사회적 상황에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려는 정신에서 형성되었다. 여기에는 전통적 가족 개념에서 확대되어 민족으로서의 가족 개념이 나타나 있고, 나그네도 포함하는 광의적 가족/형제 이해가 나타나 있다. 이스라엘의 예배 공동체에는 어떠한 사회적 약자도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신명기 개혁 운동의 정신이 반영되어 있다. 이러한 정신에서 비로소 6일간 노동을 하고 제 7일에 휴식하는 신명기의 안식일 계명이 형성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2) 예배 공동체의 참석자의 확대(신 16:11, 14; 26:11; 참조 신 12:18)

신명기 개혁운동에서의 예배 개혁의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가 예배 참석자의 확대였다. 신명기 12장 18절에서는 단수 표현의 연설 형태로 예배 참석자의 범주를 상술하고 있다: “너, 너의 아들과 딸, 너의 남자노예와 여자노예들.” 이 목록은 전 가족을 망라한 표현이다. 여기에 이어 레위인

14) 또한 안식일 준수 이유를 출애굽 전승에 근거하여 말한다(신 5:15a). 이는 포로기적 신학의 반영이다. 한 동구, “이스라엘과 이방민족들”을 참조하라.

들의 배려를 강조한다(신 12:18ab, 19). 여기에서 언급된 목록은 정치적으로 구성된 어떤 전체¹⁵⁾를 의미한다. 신명기 개혁운동에서는 민족을 형제로 표현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예배와 축제 공동체에 참석하는 자들의 목록 속에 신명기 12장 18-19절에서는 ‘나그네’의 참석을 언급하고 있지 않다. 이 배제가 신명기 개혁 운동의 본래적인 정신에서 나온 주장인지, 아니면 다양한 언급들 속에 우연한 배제인지 분명치 않다.

그리고 신명기 26장 1-11절에서는 첫 열매 추수감사절을 규정한다. 여기에서도 축제의 참석자의 목록을 “너, 레위인 및 나그네”로 열거한다. 신명기 예배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는 예배 참석자를 민족 전체로 확대시키고 있다. 신명기에 따르면 예배에 참석하는 구성원은 ‘전체 이스라엘’이다. 개개의 가족, 계층, 신분이 모두 민족으로 통합된다. 예배는 신명기의 법에 따르면 하나로 통합된다. 모든 신분과 계층은 한 성소에서 하나가 되어야 하며, 따라서 민족 전체의 공동체가 실현되어야 한다.

신명기 개혁운동에서는 국가적 연대를 위해 새로운 예배제도의 개혁을 단행하였고, 이를 위해 이전에 사용되지 않았던 비용들이 추가로 필요하게 되었다. 신명기 26장 2, 10절에서 모든 식물의 첫 열매를 언급한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영토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첫 열매를 드릴 것을 명하였다. 모든 농산물의 첫 열매를 드리는 제도는 아마도 이스라엘의 왕조 시대 말기에 새롭게 형성된 제도로 보여진다.¹⁶⁾

첫 열매 예물의 사용 용도에 대하여 구약의 어떤 본문도 분명하게 예시하고 있지 않다. 다만 현 본문에서는 예배를 위하여 사용된다는 점과 사

15) G. Braulik, "Die Freude des Festes, Das Kulturverständnis des Deuteronomium – die älteste biblische Festtheorie," R. Schulte(Hg.), *Liturgia, Koinonia Diakonia*, FS für Kardinal F. König, (Wien, 1970), 127-179, 특히 168. 그는 언어적 특징을 근거로 다음과 같은 점을 지적한다. 신명기는 가족과 개인을 토대로 한 축제 공동체를 형성했다. 이러한 것은 뒤로부터 조성시킨 사회적 구조물이 아니라, 밑으로부터 세워진 것이다(168).

회적 약자를 위하여 사용된다는 점을 암시한다. 신명기 26장 11절에서도 축제적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너는 야훼 네 하나님께서 너와 네 집에 주신 모든 재물로 즐겨야 한다.” 신명기에서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기쁘게 누리고, 무엇보다도 다함께 누리는 것은 신명기의 중요한 관심사이다. 신명기에서 요구된 기쁨은 그 근거가 민족 전체가 차별 없이 예배에 참석하여, 야훼의 축복을 다함께 누리는 것에 있다.

신명기 예배는 진정한 기쁨의 공유를 위하여 사회적 약자들도 하나님의 축복을 함께 누리도록 했다. “야훼 앞에서의 기쁨”이란 사회적으로 예측되어 있거나 빈궁에 처한 자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는 것이다. 창고에 곡식이 넉넉한 때에 부족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형제도 요구할 수 있게 허용했다(신 15:7-11).

신명기 16장 1-8절에서는 유월절과 무교절을 규정하며, 신명기 16장 9-12절에서는 칠칠절에 대하여 규정한다. 신명기 16장 11-12절에서는 축제의 참석자의 목록을 열거하였다: “너희와 너희의 아들과 너희의 딸과 너희의 남종과 너희의 여종과, 너희의 성문 안에 있는 레위인과, 너희 중에 있는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 여기에서도 예배의 참석자가 광범위하게 확대되었다. 먼저 가족의 범주에 속하는 자들, 즉, “너희와 너희의 아들과 너희의 딸”이 열거된다. 전통적으로 “너희의 남종과 너희의 여종”도 가족의 범주에 속한다.

그리고 신명기 개혁운동으로 인하여 제사장의 신분을 잃은 레위인들도 포함할 것을 규정한다.¹⁷⁾ 그래서 레위인들은 전통적 사회적 약자와 함께 열거되었다: “너희의 성문 안에 있는 레위인과, 너희 중에 있는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 여기에는 이방인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

이와 동일한 목록이 신명기 16장 13-17절의 초막절 규정에서도 볼 수 있

16) 폰 라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물과 십일조의 이중적 세금을 내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 이상하게 여겼으나,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히지는 않았다. 폰 라트, 『신명기』(국제성서주석 5;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6), 157쪽.

다. 다만 여기에서는 표현을 정리하여 다양한 참석자를 종합한 듯한 인상을 제거하였다: “너희와 너희의 아들과 너희의 딸과 너희의 남종과 너희의 여종과, 너희의 성문 안에 있는 레위인, 나그네, 고아 및 과부.”

특이한 점은 축제 참석자의 긴 목록이 유월절 축제규정에서 언급하고 있지 않으나, 칠칠절과 초막절 축제규정에서는 언급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추수절로 드리는 칠칠절과 초막절에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얻은 많은 추수물을 함께 나누며, 아훼 앞에서 즐겨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 사회적 약자의 배제하지 말 것을 규정하고 있다.

신명기 개혁운동에서는 레위인(신 12:18ab, 19; 26:11), 떠돌이(신 16:11, 14; 26:1), 고아와 과부(신 16:11, 14)를 예배의 참석자로 포함시키고 있다. 종래의 축제 시 가족 중심의 예배와는 달리 예배 참석자가 엄청나게 확대되었음을 여기에서 볼 수가 있다¹⁸⁾(참조 출 23: 16; 34:22). 이러한 확대는 후에 제사장 문헌들에서 더 이상 유지되지 않았다.¹⁹⁾

신명기 개혁운동에서는 예배에 참석하는 구성원은 “전체 이스라엘”이다. 모두가 개개의 가족 계층, 신분이 민족으로 통합된다.²⁰⁾ 예배는 신명기의 법에 따르면 하나로 통합된다. 예배나 축제는 항상 사회적 차원을 지니고 있다. 민족 축제나 민족 전체가 참가하는 예배에서는 사회적 계층간의 제한은 철폐된다; 사람들 사이의 차이는 포기된다.²¹⁾ 모든 신분 계층은 한 성소에서 하나가 되어야 하며, 따라서 민족 전체의 공동체가 실현된다. 신명기는 민족의 내적 통일성을 힘주어 강조한다. 민족 내부에

17) 지방 제사장 중에는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장으로 활동하기를 원하는 자는 레위인 제사장으로 남게되고, 혹은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장으로 활동하기를 원하지 않는 자는 레위인들도 있다. 이들은 일반 백성과 같이 살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은 땅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가난한 자로 살아가야 한다.

18) G. Braulik, “Die Freude des Festes,” 167. G. Sauer, “Israels Feste und ihr Verhältnis zum Jahweglauben,” G. Braulik(Hg.), *Studien zum Pentateuch*, FS für W. Kornfeld, (Wien 1977), 135-141.

19) 참조. “너와 너의 집”(혹은 복수). G. Seitz, *Redaktionsgeschichtliche Studien zum Deuteronomium*, (BWANT 93; Stuttgart: W. Kohlhammer GmbH, 1971), 191, 각주 288.

20) 참조. H.-G. Gadamer, *Die Aktualität des Schönen*, (Stuttgart, 1977), 52. 그는 축제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있는 다양한 신분들과 계층이 차별 없이 형제들의 대가족으로 함께 되는 곳에서²²⁾, 균열 없이 하나로 통일되는 진정한 소속감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 예배의 개혁과 공동체의 개혁은 하나이다. 예배의 단일화라는 제도는 어떠한 분리도 불가능하게 한다. 신명기의 이론에 따른 예배는 계층간의 격차를 철폐하며 모두들 하나님 앞에서의 기쁨으로 이끄는 것이다.

3) 가난한 자를 위한 십일조(신 14:28-29; 26:12-13)

이스라엘 사람들은 매 3년마다 십일조를 가난한 자들에게 넘겨주어야 한다: 신명기 14장 28-29절; 26장 12-15절. 신명기는 거룩한 헌물을 사회 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신명기 14장 28절에서는 매년 드리는 십일조 외에 매 삼 년마다 또 십일조를 드릴 것을 명한다. 이 십일조의 용도에 대하여 신명기 14장 29절에서는 “레위인, 나그네, 고아 및 과부”를 위해 드릴 것을 명한다. 앞서 예배와 축제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함께 나눌 때, 예배와 축제의 공동 식사에서 사회적 약자인 “레위인, 나그네, 고아 및 과부”들과 함께 나누워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즐길 것을 명한 바와 같이,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을 자신들 주변의 사회적 약자를 위해 매 삼 년마다 십일조를 다시 드려, 이들을 돕도록 하고 있다.

신명기 26장 12-15절에서도 가난한자를 위한 십일조를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도 신명기 14장 28-29절의 규정을 반복하고 있으며(신 26:12-13), 덧붙여 포로기와 포로후기의 상황에 적용하고 있다(신 26:14-15). 매 3년마다 “레위인, 나그네, 고아 및 과부”를 위한 십일조를 그릴 것을 명한

축제는 개개인을 하나하나 분리시키는 고립성을 거부하는 것이다. 축제는 공동체성이다.

21) 참조 G. Braulik, "Die Frende des Festes," 161.

22) 민족을 형제로 이해한 신명기의 이해는 이와 맞아떨어진다.

다. 그리고 신명기 26장 13절에서는 “가난한 자를 위한 십일조 규정”을 이미 존재하는 것으로 전제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유도한다: “...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며, ...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또 잊지도 아니하였습니다.”

4) 신명기의 인도주의적 법(들)에 나타난 사회적 약자 보호(신 24:6-25:18)

신명기 24장 6절-25장 18절에서는 인간적 공동생활(인도주의적 법률)에 관한 금령들을 조건법 형식으로 서술하였다.

신명기 24장 6절에서는 이스라엘 공동체에서는 멧돌의 뒷쪽이나 아랫쪽을 담보로 잡지 못하도록 금하고 있다. 이는 사회적 약자의 생존권을 지키려는 배려이다. 계속되는 담보에 대한 법령들이 신명기 24장 10-13절에서도 포함되고 있다. 담보물/저당물을 채권자가 채무자의 집에 직접 가서 취하는 것을 금하였다(신 24:10-11). 담보물/저당물 가운데 담요나 겹옷을 받았을 경우 해가 지기 전에 그것을 돌려주도록 규정한다(신 24:12-13). 이는 가난한 자가 그의 마지막 이불을 담보로 제공한 후에 추위에 떨지 않도록 배려한 것이다.

이와 유사하게 사회적 약자의 최소한 생존권을 보호하려는 법령이 신명기 24장 14-15절에서도 소개된다. 가난한 일용 노동들에게 임금을 그 날 그날 지불할 것을 규정하였다. 만약 임금을 당일 지불하지 않으면, 그 일용 노동자는 생존을 보장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일용 노동자가 이스라엘 백성 즉, 형제 중의 한 사람이거나 혹은 이스라엘 땅에 나그네로 살아가는 외국인이든 구별하지 말도록 하였다. 일용 노동자의 임금을 채불하는 것은 그를 학대하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는 신명기 24장 17-18절에서도 볼 수 있다. 송사에서 당사자가 나그네이거나 고아일 경우 그 재판을 부당하게 하여 그

들을 억울하게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다. 여기에서 나그네가 이스라엘 백성 중에 타향에서 살아가는 자인지 아니면 외국인지는 분명치 않다. 중요한 한 점은 그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사회적 약자라는 점이다. 특정한 뒷 배경이 없다고 하여 법을 왜곡해서는 안 된다(참조 신 27:19).

또 과부의 겹옷을 담보/저당으로 잡지 말 것을 규정한다. 이어 이스라엘도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으며, 야훼 하나님께서는 이를 불쌍히 여겨 구속하였으며, 이스라엘을 억류했던 애굽을 징계했던 역사적 경험을 상기시키며, 이와 반대의 처지에 놓인 사람을 억압하지 않도록 하라고 규정한다.

이스라엘 공동체에서는 관습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약자 보호법을 시행해 왔다. 추수할 때, 다양한 부스러기들이 생겨나며, 이것들을 사회적 약자의 몫으로 돌렸다. 먼저 신명기 24장 19절에서는 추수할 때 잇고 따지 않은 것을 다시 가서 취하지 말도록 명한다. 이것을 “잊어버린 것(שָׂרֵף 샤카흐)”이라 부른다. 또 곡식은 물론 과일 나무에서도 잇고 따지 않은 것을 다시 가서 따지 말 것을 명한다(신 24:20). 과일 나무의 가지 여기 저기를 살살이 뒤져 따는 것을 금하였다. 이것을 “살살이 뒤져 따지 말 것(פִּירְיָא פּוֹרֹט) 포포트”라 하였다. “잇고 따지 않은 것”은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라고 하였다. 또한 과일 나무의 경우 과일나무에서 과일을 딸 때, 한 번 딴 나무를 다시 돌아가 살피 따지 말 것을 명한다(신 24:21; 참조 레 19: 10). 이것 역시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의 몫이다. 이것을 “살피 따지 말 것(חִבְלָה וּלְרֹט) 올레로트”이라 한다.

그 밖에도 구약성서 내의 각종 법률 집에서는 나그네의 보호와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사회는 가난한 자(고아와 과부를 포함)와 나그네를 위해 추수의 여분을 이들의 몫으로 규정한다. 이것은 고대에서부터 후대의 미쉬나에 이르기까지 가난한 자를 돌보기 위한 사회적 복지적 법률제도였다.²³⁾ 이를 여러 가지 용어로 표현하고 있다²⁴⁾: 들의 가

장자리(פֶּאִי פֵּיא)²⁵⁾, 떨어진 이삭(טֶקֶטֶטֶ 레케트)²⁶⁾, 떨어진 과일(פֶּרֶטֶטֶ 페레트)²⁷⁾ 등이다.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고아(יָתוּם 야툼)와 과부(אַלְמָנָה 알마나)를 전통적으로 사회적 약자, 즉, 도움이 필요한 자로 간주하였다. 여기에 신명기에서는 나그네(גֵּר 게르, 복수 גֵּרִים 게림)²⁸⁾와 레위인을 추가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약자의 보호는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역사적 경험에 근거한다(신 24:22).

5. 요약 및 결론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왕권 제도의 등장과 함께 적지 않은 사회적 변화를 가져왔다. 새로운 특권층과 함께 사회적 약자들이 생겨났다. 기원전 8세기 후반부터 대량의 사회적 약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한다.

그 원인으로는 북방국 멸망과 함께 대량의 난민들이 몰려왔으며, 동시에 농촌으로부터 몰락한 (소자유) 농민들이 도시로 몰려오면서 생겨난 일이다. 그밖에도 조세나 부역의 부담 및 긴 전쟁도 부분적으로는 작용했을 것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시기에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신학적 주장도 강하게 제기되었다. 신명기에서는 다양한 형태로 나그네 및 사회적 약자의 배려해야 한다는 주장들에 제기되었다.

23) 랍비 문헌에서는 “남은 이삭, 잊은 것, 가난한 자를 위한 십일조, 땅의 가장자리”를 가난한 자를 위한 4대 사회복지의 제도로 간주하였다. 참조 Angerstorfer, “פֶּאִי”, *7hWAT* Bd. VI(1989), 491-494.

24) J. D. Amusin, “Die Gerim in der sozialen Legislatur des Alten Testaments,” *KLO* 63(1981/1), 15-23.

25) 미쉬나에서는 땅(논, 밭, 과수원)의 1/60을 가장자리로 규정한다. Angerstorfer, “פֶּאִי”, 491-494.

26) 추수하는 동안 바닥에 떨어진 이삭을 말한다. 대개는 곡식에 해당하는 말이다. 룯기에서는 룯이 보아스의 들에서 떨어진 이삭을 줍는 모습을 묘사해 주고 있다(룯 2: 2, 3, 7, 8, 15, 19, 23).

27) 과일들이 자연적으로 떨어진 경우(레 19:10).

28) 신 10:18; 14:29; 16:11, 14; 24:17, 19, 20, 21; 26:13; 27:19.

6. 참고문헌

- 왕대일, “나그네: 구약신학적 이해,” 「신학사상」 제 113집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2001년 여름), 101-121.
- 이태훈, “구약의 외국인 복지,” 「구약논단」 제 14권 1호 (2008년 3월 31일), 70-88.
- 이희학, “역대기하 30장 25절의 ‘회중, 이스라엘, 나그네’ 에 대한 연구” 「구약논단」 제 16권 2호 통권 36집(2010년 6월 30일), 10-29.
- 정중호, “고대 이스라엘 사회의 게르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논총」 제 23권 1호(대구: 계명대, 2004), 511-525.
- 폰 라트, 「신명기(국제성서주석 5)」(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6).
- 한동구, “나그네살이 인생과 자손의 약속(창 16장),” 「구약논단」 제 13권 1호 (2007년 3월 31일), 12-30.
- 한동구, “나그네에 대한 (구약) 성경적 연구,” 「창세기의 신앙과 신학」(한국구약총서 014; 서울: 프리칭 아카데미, 2010), 172-193.
- 한동구, “안식일 이해의 변천사와 종교교육전통,” 한동구, 「창세기의 신앙과 신학」(한국구약총서 014; 서울: 프리칭 아카데미, 2010), 77-81.
- 한동구, “이스라엘과 이방민족들,” 한동구, 「신명기 해석」(서울: 도서출판 B&A, 2004), 174-201.
- 한동구, 「신명기 개혁운동의 역사」(서울: 도서출판 B&A, 2007), 44-45.
- Amusin, J. D., “Die Gerim in der sozialen Legislatur des Alten Testaments,” *KLIO* 63(1981/1), 15-23.
- Angerstorfer, “**גֵּר**,” *ThWAT* Bd. VI(1989), 491-494.
- Braulik, G., “Die Freude des Festes. Das Kultverständnis des

- Deuteronomium – die älteste biblische Festtheorie,” R. Schulte(Hg.), *Liturgia, Koinonia Diakonia*, FS für Kardinal F. König, (Wien, 1970), 127–179.
- Broshi, M., “La Population de l'ancienne Jerusalem,” *RB* 82(1975), 5–14.
- Gadamer, H.-G., *Die Aktualität des Schönen*, (Stuttgart 1977).
- Kellermann, D., “נִירָ,” *ThWAT* 1, 979–991.
- Kenyon, K. M., *Jerusalem. Die heilige Stadt von David bis zu den Kreuzzügen Ausgrabungen 1961–1967*, (Bergisch – Gladbach, 1968).
- Kenyon, K. M., *Digging Up Jerusalem*, (London, 1974).
- Levin, Ch., *Der Sturz der Königin Atalja*, (SBS 105; Stuttgart: Verlag Katholisches Bibelwerk, 1982).
- Meier, W., “... Fremdlinge, die aus Israel gekommen waren ... Eine Notiz in 2 Chr 30, 25f. aus der Sicht der Ausgrabungen im Jüdischen Viertel der Altstadt von Jerusalem”, *BN* 15(1981), 40–43.
- Otto, E., *Jerusalem – die Geschichte der Heiligen Stadt. Von den Anfängen bis zur Kreuzfahrerzeit*, (UT 308; Stuttgart, 1980).
- Rösel, H., “Haus,” *BRL* (Tübingen 19772), 138–141.
- Sauer, G., “Israels Feste und ihr Verhältnis zum Jahweglauben,” G. Braulik(Hg.), *Studien zum Pentateuch*, FS für W. Kornfeld, (Wien 1977), 135–141.
- Schottroff, W., “Kirche als unantastbarer Raum für Flüchtlinge. Biblische und aktuelle theologische Aspekte des Asylrechts,” ders., *Die Macht der Auferstehung*, (KT 30; München: Chr. Kaiser Verlag, 1988), 91–97.
- Seitz, G., *Redaktionsgeschichtliche Studien zum Deuteronomium*, (BWANT

93; Stuttgart: W. Kohlhammer GmbH, 1971).

www.kci.go.kr

검색어

신명기

나그네

약자

신명기 개혁운동

이농현상

피난민의 유입

Prohibiting Oppression of the Disadvantaged and the Aliens in Society by the Deuteromic Reform–Movement

Dong–Gu Han, Th.D.

Professor, Department of Theology

Pyeongtaek University

The present article studies the social reform, a part of the deuteromic reform–movement which was taken place in the 8th–7th centuries BCE and was particularly concerned with the oppression of the socially disadvantaged and the aliens.

The economic growth of the 8th century had brought about enormous changes in the Israelite society, the very cause of widened gap between

the rich and the poor. The majority of the Judaeen cities expanded around the time of late 8th century, which had resulted in the three times larger residential area of Jerusalem by the time of 7th century.

The massive immigration of the refugees from the northern kingdom was the main cause of the expansion, alongside that of the farmers from the rural regions. Israel as a state charged its people tax and corvee, to which tributes to Assyria were added. The prolonged state of war left the farmland deserted with the reduced agricultural products. Because of the economic hardship, the rural farmers fell into debt to the rich, who took advantage of the situation to increase their wealth.

Since Hezekiah the aliens/the sojourners had been a serious social problem. The theological justification to support them was definitely associated with this historical context. The present article seeks to find the exact reasons of the appearance of the aliens, particularly the historical causes of it in the 8th–7th centuries BCE. The concern for the aliens and the socially weak in Deuteronomy is examined in light of various legal ordinances. Among the ordinances are (1) the prohibition of excluding the aliens from the Sabbatical services(Deut 5:14), (2) the encouragement of various groups in society to attend the services(Deut 16:11, 14; 26: 11; cf. Deut 2:18), (3) the bringing of the tithes to help the poor(Deut 14:28–29; 26:12–13), (4) the concern for the socially disadvantaged attested in humanitarian ordinances(Deut 24:6–25:18).

Key words

Deuteronomy

Aliens

The disadvantaged

The deuteronomic reform-movement

Abandonment of the farmland

Immigrant of the refugees

- 투고일: 2012년 6월 20일
- 심사일: 2012년 7월 20일
- 게재 확정일: 2012년 7월 25일